

향군성명

변함없는 북한 국가안보전략 재검토 필요

향군은 10월15일 성명을 통해 북한이 10월10일 0시를 기해 가진 대규모 열병식 행사에서 새로운 전략무기들을 대거 공개한 데 대해 “우리의 대비전략은 북한의 당 창건 75주년 행사 이후를 기준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에서 향군은 “새로운 전략무기로 평가되는 신형 ICBM 및 SLBM을 비롯한 초대형 방사포, 장갑차 등 신형 전술무기들이 대한민국에 직접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퍼레이드에 참가한 군인들의 복장과 장비들도 과거에 비해 현저히 향상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는 우리에게 대한 위협이 증대되었다는 사실이 확실히 입증하고 있으며 북한의 전략전술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김정은이 연설을 통해 유화적 대남 메시지를 밝혔으나 북한은 핵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세계를 위협하고 이미 그 수위는 위협을 넘어 우리의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냉철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새로운 국가안보전략 구상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전략적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함께 국가주권과 군사주권 회복을 위한 노력은 이미 동맹국 미국은 물론 국민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최우선 사안인 만큼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만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명서 전문 2면>

향군 창설 68주년, “국민 생존위한 안보활동 추진할 것”

김진호 회장, 국가안보와 지역사회 발전위해 헌신하는 회원들에게 감사



향군의 날 기념식 유공자 포상, 장학금 전달

향군은 10월27일 향군회관에서 국가보훈처 이남우 차장과 본부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연기했던 제 68주년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를 가졌다. 향군의 날은 10월8일이다.

이날 김진호 향군회장은 향군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더불어 민주당 인천 서구 갑 김교홍 국회의원과, 문화갑 전 대구시장에게 향군 대회장을 수여했다.

또 서울 관악구 향군 박봉주 회장은 국민훈장 목련장을, 안양시 향군 김기흥 회장과 1명은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그 외 215명이

대통령, 국무총리, 보훈처장, 향군회장 표창을 받았다.<포상자 명단 2면>

김진호 향군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전국 각지와 해외에서 ‘안보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일념으로 국가안보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1천만 향군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 “오늘의 안보상황은 북핵과 미사일 등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우리 향군은 국내 최대의 안보단체로서 현재의 안보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여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을 수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안보활동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향군은 재향군인의 날인 10월8일 각급회에서 추천된 인원을 대상으로 심사

를 거쳐 연세대학교 정재연 학생 등 25명에게 향군장학금 100만원씩을 전달했다. 그 중에는 ‘인천 라면 형제’ 2명도 포함되었으나 최근 동생이 숨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향군은 참전용사 후손과 제대군인 및 회원 자녀 중 학업이 우수한 대학생 등 청소년 인재 육성을 위해 2012년 ‘향군장학재단’을 설립한 이후 현재까지 205명에게 1억9천8백만원을 지원했다.

한편 전국 각급회와 해외지회에서도 향군의 날을 전후로 자체 기념식을 갖고 회원 상호 친목도모와 함께 국가안보에 대한 결의로 제2안보 보루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향군, 봉오동·청산리전투 100주년 기념 사진전시회

항일무장투쟁 정신 본받아 국가안보 중요성 깨달길...



향군은 10월22일, 23일 서초동 향군회관 앞에서 봉오동 청산리전투 10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 사진전시회를 개최했다.

향군은 10월22일, 23일 서초동 향군회관 앞에서 봉오동 청산리전투 10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 사진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진전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지키며 야외 행사로 실시됐으며 김진호 향군회장, 이동일 순국선열유족회장을 비롯하여 향군 부서장과 임직원, 그리고 오가는 많은 시민들이 관람을 하며 일본과 맞서 싸웠던 그날의 항일정신을 기렸다.

김진호 회장은 “우리 선열들이

나라를 찾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널리 알려지기를 바란다”며 “이번 사진전시회가 항일무장독립투쟁의 역사와 정신을 본받고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일 순국선열유족회장은 “만주지역 항일무장독립투쟁 단체들의 활동과 업적을 재조명하고 무장투쟁의 역사를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봉오동·청산리전투 100주년 기념 사진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이번 사

진전시회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서 열린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봉오동 전투는 1920년 6월 흥범도 장군 등 독립군 연합부대가 만주지역에서 일본군 추격대대를 궤멸시켜 수많은 일본군 사상자를 낸 독립전쟁사의 기념비적 전투였으며 청산리 전투는 1920년 10월 김좌진 장군과 흥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을 비롯한 독립군 연합부대가 약 일주일 동안 일본군과 전투를 벌여 독립군 최대의 전과를 거둔 대첩이었다.

“변하지 않은 북한, 국가안보전략 재검토 필요하다!”

북한은 지난 해 연말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과 '충격적 실제행동'을 공언한 이후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을 통해 새로운 전략무기로 평가되는 신형 ICBM 및 SLBM을 비롯한 초대형 방사포, 장갑차 등 신형 전술무기들을 공개했다. 특히 대한민국에 직접 위협이 되는 초대형방사포, 북한판 이스칸데르 및 에이태킴스 미사일, 대구경 조종방사포 등 이른바 '신무기 4종 세트' 뿐 아니라 페레이드에 참가한 군인들의 복장과 장비들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향상된 변화를 보여주며 전력을 과시했다. 이는 우리에게 대한 위협이 증대되었다는 사실이 확실히 입증되었다. 이에 항군은 북한이 그동안 여러 차례 남북·미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비핵화 가능성을 내비치던 외양과 상관없이 핵개발을 비롯한 전략무기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등 이번에 내보인 전력 증강이 한반도의 향후 전작권 전환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안보위협에 직면했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항군의 입장을 밝힌다.

◆북한의 전략전술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 북핵 문제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은 우리의 핵심 국익이고 세계평화에도 직결되는 과제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남북간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를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이들 세 축 사이의 상호추동을 통해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국가안보 목표 중 하나다.

· 그런데 지난 10일 북한의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을 보면 그동안 비핵화를 위한 남북,미북정상회담 등의 대화와 약속이 있었지만 정작 북한은 핵개발에 전력하여 소형화, 경량화, 규격화, 다종화 등을 순조롭게 진행하여 더 많은 핵을 비축하고 이를 운반할 수 있는 수단도 더욱 발전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북한의 대남 전략전술이 전혀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준 것이다.

◆우리 대비전략은 북한 당 창건 75주년 행사를 기준으로 달라져야 한다

·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김정은은 연설을 통해 유화적 대남 메시지를 밝혔으나 북한은 핵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세계를 위협하고 이미 그 수위는 위협을 넘어 우리의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물론 평화를 위한 대화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평화란 강한 힘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그 실체는 상대가 감히 우리를 넘보지 못할 수준이어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 대한민국의 방어체계는 '당 창건 75주년 행사 이전과 이후로 구분'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의 대북 전략은 북한이 이번에 선보인 새로운 무기체계를 갖추기 이전에 계획된 것으로 사실상 새로운 대응전략이 요구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냉철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한 새로운 국가안보전략 구상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평화도 대화도 가능하다.

◆북한의 핵과 ICBM은 미국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 최근 일부 정치인이나 전문가들은 북한의 ICBM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고 미국만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개발한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유엔 제재와 내부의 어려움을 견뎌내며 핵과 ICBM을 개발하는 것은 북한이 대남적화 전략을 시행함에 있어 대남군사력의 우위를 달성함은 물론 전략적으로 걸림돌이 되는 미국의 한반도 개입을 차단할 목적으로 보아야 한다.

· 대한민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이번에 선보인 '신무기 4종 세트'로 이들 무기체계는 주한미군의 심장부인 평택·오산기지는 물론 경북 성주 사드 기지,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F-35 스텔스가 배치된 청주기지 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유사시 ICBM으로 미국을 위협하고 신무기 4종 세트로 우리를 직접 공격 시 그 피해

는 예상을 뛰어넘을 것이다.

· 따라서 북한의 대남적화전략 의도를 명확히 식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에 대한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전작권 전환, '시기' 아닌 '조건'에 맞춰 신중하게 접근하라

· 우리 정부는 그 동안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많은 진전을 가져왔다.

전작권 전환은 6·25전쟁 이래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다져온 우리 안보의 근본 틀을 바꾸는 중대한 변화다.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최우선 시안인만큼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만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에스퍼 장관은 지난 14일에 열린 한미국방장관이 참석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으로의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양측은 현재와 같은 굳건한 연합방위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연례 SCM 및 MCM을 통해 전작권 전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 우리 정부의 전작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함께 국가주권과 군사주권 회복을 위한 노력은 이미 동맹국 미국은 물론 국민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건'에 의한 상황이 미충족됨에도 불구하고 '시기'에 집착하는 것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항군은 전직 연합사령관 등 미 고위 장성들도 한국군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전작권 전환의 적기가 아니며 조건에 의한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최근 북한의 당 창건 행사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의 위협이 확인되었고 SCM에서 미측이 '시기'보다는 '조건충족'을 언급했음을 유념할 때 전작권 추진은 향후 미측과 충분히 협의 후 시행해야 할 것이다.

국가안보 제2보루인 1천만 항군은 북한이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전략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하루 빨리 우리의 국가안보전략을 재검토하여 군의 방위역량강화에 만전을 기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아울러 항군은 북한이 당 창건 75주년 행사 이전과 이후로 확연히 달라진 안보상황을 고려해 전작권 전환이 '시기'가 아니라 '조건충족'에 기반해야 함을 유념하여 국가안보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임을 천명한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제68주년 향군의 날! 포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부포상

단체

대통령 표창

전라북도 향군, 경기도 성남시 향군, 제주특별자치도 향군, 대구 수성구 향군, 인천시 향군여성회

국무총리 표창

경기도 향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향군, 경기도 부천시 향군, 인천시 서구 향군, 경상북도 울릉군 향군

국가보훈처장 표창

전라북도 남원시 향군, 강원도 고성군 향군, 서울시 관악구 향군, 미국 동부지회

개인

국민훈장

박봉주 서울시 관악구 향군회장

국민 포창

김기홍 경기도 안양시 향군 회장, 김왕진 강원도 영월군 향군 회장, 최진선 강원도 고성군 향군 사무국장

대통령 표창

김영경 경기도 수원시 향군 회장, 방수정 충청남도 천안시 향군 회장, 김근태 경상북도 영덕군 향군 회장, 변종연 울산시 중구 향군 회장, 한정석 인천시 향군 사무국장, 홍순오 부산시 사하구 향군 회장, 윤영배 서울시 동대문구 향군 회장, 황은철 본부 홍보실 홍보기획부장, 김진석 본부 호국안보국 안보부장

국무총리 표창

이종대 대전시 유성구 향군 회장, 주한중 충북 음성군 향군 해병부 회장, 이복례 서울시 향군여성회 회장, 김준홍 경상북도 구미시 향군 사무국장, 박희복 경기도 향군 이사, 김덕형 충청북도 진천군 향군 사무국장, 안종원 본부 경영본부 사업관리부장, 박묘경 본부 조직복지국 회원회비과장, 김혜영 본부 조직복지국 참전차장

국가보훈처장 표창

송익섭 강원도 흥천군 내촌면 향군 회장, 김무환 대구시 향군 안보부장, 이쌍행 전라북도 정읍시 향군 사무국장, 박찬속 전라북도 향군여성회 회장, 지영애 인천시 계양구 향군 행정과장, 방재천 충청남도 공주시 향군 회장, 김희대 경상북도 영천시 향군 사무국장, 김봉기 서울시 성동·광진구 향군 부회장, 박길환 경상북도 고령시 향군 사무국장, 김남식 경기도 안산시 향군 사무국장, 정성운 본부 조직복지국 조직차장

◆향군포상

향군대회장

김교홍 국회의원, 문희갑 전 대구시장

회장 표창

윤성천 본부 경영본부 자산매각팀장, 박신권 본부 안보대응과장, 박경선 본부 안전감사관, 최락군 본부 임원과장, 박광석 본부 수송관리차장, 이성덕 본부 현충사업과장

김승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김진호 회장 예방



김진호 회장은 10월19일 취임 인사차 향군을 방문한 김승겸(육군대장)연합사 부사령관을 맞아 취임을 축하하고 방문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김승겸 부사령관은 한미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쏟아 붓겠다고 밝혔다.

향군역사 바로알기 24

재정위기 극복 대책 마련, 재무건전화 계획 추진

사업개발본부 폐지, 자산관리 T/F 신설 부실사업 정리

향군 수익사업의 변천 과정 (하)

재향군인회(이하 향군)는 2000년대 초부터 무리한 부동산개발 투자를 했고, 이어진 부동산 경기 침체가 맞물려 발생한 재정위기로 지금까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재정위기의 발단 원인과 과정,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무리한 부동산 투자로 촉발된 재정위기 5,600억 부채, 하루 이자 1억...최악상황

2004년 부동산경기가 활성화 되자 향군은 사업개발본부를 설립하여 무리하게 아파트, 오피스텔 리조트 등 부동산개발 투자를 했다. 그러나 2007년부터 시작된 건설경기 하락과 2009년 외환위기로 건설사나 저축은행 등이 줄도산 되자 향군도 자금압박에 몰렸고 재정위기에 봉착했다.

그 당시 향군은 은행 차입금 2,898억원에 단기성어음 2,700억원 등 총 5,600억원의 부채로 하루 이자만 1억원에 가까워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였다.

설상가상으로 S&S 사업본부 U-케어사업단장 등 관련 임직원이 향군의 수익사업 절차를 무시한 채 KTB투자증권 앞으로 보증용 인감증명서 발급하고, 대출받은 자금 790억원 중 277억원을 횡령하는 범죄가 발생하여 향군이 대위변제까지 떠맡게 되었다.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2011년 8월 MBC-TV의 PD수첩에서 '향군 부도위기'라는 보도가 나왔고, 이를 시작으로 재정위기 문제가 전 언론에 노출됨으로써 향군의 금융권 신용등급이 급격히 하락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신규대출은 중단되었으며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이자에 2012년에는

유동성 위기까지 도래되어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다.

그러나 향군은 2011년 초부터 위기상황을 감지하고 본격적으로 재정위기에 대한 진단과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갔다.

우선 사업개발본부를 폐지하고 자산관리 T/F를 신설하여 부실사업을 정리해 나갔다. 또 향군 전반에 대한 재무상태 진단과 재무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했다.

당시 박세환 회장은 재무개선을 위해 ▲고금리 단기 차입금의 저금리 장기 채무로 전환 ▲부실사업장의 조기 매각 및 채무 원금상환 ▲신규사업 원칙적 중단 및 차입금 추가 발생 억제 등 재무개선 3대원칙을 천명하고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

또 경영총장제를 도입, 전문경영인 출신 경영총장을 영입하여 경영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했으며 전문업체에 의한 경영진단, 수익사업 구조조정, 건축 경영 등 많은 대책들을 마련하여 경영위기 극복에 총력을 경주했다.

경영총장 영입, 경영혁신...구조조정, 재정위기 극복 총력, 부채 800억 줄여

이후 2015년 4월 박세환 회장이 퇴임하고 35대 조남풍 회장이 취임했지만 불미스러운 일로 중도 사퇴하고 장기간 대행 체제가 유지되면서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그리고 2017년 8월 향군은 36대 김진호 회장이 취임 이후 국가보훈처가 제안한 '향군개혁 방안'을 포함한 자체 '향군발전 개선방안'을 마련,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과 경영혁신 등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조직을 조기에 정상화하는 한편 물려받은 부채 5,500억원에서 4,700억원으로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향군 안보교수 선발 공고

1. 운 용
대국민 안보교육을 위한 향군안보교수는 상설직원이 아닌 비상설로 피교육 기관의 강의 요청 시에만 운용함

2.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모 집 부 문	자 격 기 준
일반 안보교수 00명 명예 안보교수 0명 (위촉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군 정관 제11조(결격사유) 각 호 1 에 해당되지 않는 자 향군 정회원(여성회원 가입자) 석사 학위 이상 지원연령 : 만 60세 미만(명예교수 : 만 61~만 70세)

3. 전형방법 및 응시 구비서류

전형방법	필 수 구 비 서 류
① 서류전형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별첨" 양식) 5. 경력(군, 민간)증명서 각 1부
② 실기평가 (연구강의)	2. 강의계획서 ("별첨" 양식) 6. 주민등록등본 1통
	3. 향군 정회원(여성회원증) 사본 1부 7.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별첨" 양식)
	4. 최종학력증명서 1부 *양식은 향군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4.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0. 11. 2(월)~11. 13(금)17:00까지 방문 또는 우편접수
나. 제 출 처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대한민국재향군인회(8층 교육부)

5. 전형일정

가. 1차 합격자 발표 : 2020. 11. 20(금)
나. 2차 연구강의 : 2020.11. 23(화)~12. 11(금)/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개인별 일차 통보 (향군 표준교안 제공, 30분 강의/질의 답변) *명예교수는 서류전형 선발
다. 최종 합격자 발표 : 2020. 12. 16(수) 예정
라. 향군안보교수 위촉식 : 2020. 1월 5일 예정/향군 회의실(4층)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기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본회 교육부로 문의 바람
(전화 : 02) 416-6456 / 교육차장)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망대

북, ICBM · SLBM 발사하면 미국, 한국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

부형욱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책임연구위원이 10월21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하면 미국이 이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나라에 신형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 위원은 '미중 전략경쟁 시기 미국의 군사적 대응: 한반도 전략상황에의 함의'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드 배치의 후폭풍보다 더 곤혹스런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2019년 8월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파기한 이래 중거리미사일

을 착착 준비하고 있다"며 "북한이 도발하면 이를 명분으로 한반도에, 중국이 도발하면 그것을 명분으로 괌, 오키나와 등에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유 있었던 북한의 야간 열병식 주민우무 초점...이면엔 통치 스트레스 표현

통일연구원 흥민 북한연구실장은 10월 12일 북한의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이 야간행사로 진행된 이유에 대해, 열병식 보도사진 127개 중 무기사진이 62개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야간 조명효과를 통해 이 무기들을 보다 위력적이고 입체적으로 돋보이게 하고, 화려한 에어쇼와 불꽃놀이 등 축제분위기 연출을 통해 코로나19와 수해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된 평양 시민들을 위무하는 효과를 주며, 외신기자나 외빈을 초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화려한 볼거리와 행사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편집해 대외에 알리려는 목적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김 위원장이 연설에서 이례적으로 코로나19, 자연재해, 대북제재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감사에 3분의1 가량을 할애해 위무와 결속에 초점을 맞췄으나 이면에는 통치의 어려움, 부담감, 스트레스의 표현으로도 읽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브록스 "종전선언, 고려할 가치 있어"

효과적 대북제재 방해 가능성도 유념해야...

빈센트 브록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10월 20일(현지시간)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

린 한미연구소(ICAS) 가을총회에서 "만약 종전선언이 관계 변화의 실질적인 신호라면 한국이 북한에 모종의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며 미군 투입을 포함한 양측의 군사태세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며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 "고려할 가치가 있고,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대내적으로 종전선언을 승리로 치장해 선전선동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대화의 문을 다시 열어 유해발굴 재개, 9·19 군사합의 이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기대했다.

다만 "이 같은 생각에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고 널리 받아들여지는 생각도 아니며 미국과 서방 국가에서는 종전선언이 효과적인 대북제재를 방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유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서육 국방, 미 인도태평양사령관 접견

한반도 안보정세 및 동맹현안 논의



서육 국방부 장관이 필립 데이비슨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을 접견하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서육 국방부 장관이 10월 20일 방한한 필립 데이비슨(Philip S. Davidson)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을 접견하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정세와 다양한 동맹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서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데이비슨 사령관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고 지난 6월 북한 내에서 발굴된 국군전사자 유해가 국내로 봉환될 수 있도록 인도태평양사령부가 도움을 준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서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며 한국의 우수한 코로나19 대응역량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 장관과 데이비슨 사령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 구축을 위해 인도태평양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한미가 함께 기울이고 있는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연평부대 · 백령도 6여단 방문...JSA도

어떤 상황에도 대응,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점검



해병대 연평부대와 백령도 제6여단을 방문하여 서북도서 방어를 위한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는 서육 국방장관

서육 국방부 장관이 10월 9일 해병대 연평부대와 백령도 제6여단을 방문하여 서북도서 방어를 위한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서 장관은 연평부대를 방문 “빈틈없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꽃게 성어기에 서해상에서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서북도서 최전방 백령도의 해병 제6여단을 방문, 서북도서 방어를 위한 작전현황을 보고 받고 “군 본연의 임무는 어떠한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군사대

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또 “우리 해병대 장병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지난 여름 장마 및 태풍 피해 복구, 코로나19 대응 등 신뢰받는 ‘국민을 위한 군’으로서도 소임을 다했다”고 격려했다. 한편 서육 국방부 장관은 앞선 10월 3일 에이브람스 유엔군 사령관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 현행작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한미안보협의회의 개최... 북 ICBM 우려

한반도 분쟁방지 · 동북아 안정위한 주한미군 역할 재확인



서육 국방장관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앞서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함께 워싱턴 6·25전쟁 참전 기념공원을 방문하여 헌화했다.

서육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공동 주재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10월 14일 워싱턴에서 개최됐다. 이날 양 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분쟁 방지와 동북아 지역 평화·안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최근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

미사일(ICBM)을 공개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서육 국방장관은 이날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앞서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함께 워싱턴 6·25전쟁 참전 기념공원을 방문하여 헌화하고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를 대표해 미국 국방

부 포로/실종자 확인국(DPAA) 맥케그(Kelly K. McKeague) 국장에게 보국훈장 천수장을 수여했다. 맥케그 국장은 6·25전쟁 유해 발굴 및 신원확인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국군 추정 유해를 선제적으로 감식하고 우리 측에 봉환사업을 제안하는 등 사업 추진 기반을 구축해 왔다.

국방단신

추석 앞두고 6.25 참전용사 위문...생필품 전달 위로

국방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28일, 29일 양일간 6.25전쟁 참전유공자와 아동복지시설 해심원과 영락 애니아의 집을 찾아 위문활동을 펼쳤다. 6.25전쟁에 참전한 강중원(84세, 남)씨의 자택을 방문한 국방부는

국가에 대한 헌신과 희생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위문금과 함께 위문품으로 냉장고를 전달했고 아동복지시설 해심원과 영락 애니아의 집 아동들에게는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내기를 바라며 송편 등 맛있는 간식과 생필품을 전달하고

위로했다. 국방부는 매년 연말연시와 설, 추석 명절에 직원들이 성금을 모아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이나 생활이 어려운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자녀, 독거노인 등을 찾아 위문 활동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판문점 견학 11월4일부터 ... 6일부터 본격 시행

판문점 견학이 절차를 대폭 개선해 11월 4일부터 재개된다. 정부는 통일부에 판문점 견학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그동안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판문점 견학 창구를 일원화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판문점 견학지원센터 누리집(www.panmuntour.go.kr)을 통해 견학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개인

또는 가족 단위로도 신청할 수 있다. 견학 신청 기간도 최소 60일 전에서 2주 전으로 대폭 줄이고 견학 신청 연령도 만 10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낮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견학이 가능해진다. 판문점 견학은 11월 4일 시범견학 이후 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국민들은 판문점견학

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10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견학 재개 초기에는 아프리카대지열병과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안전한 견학이 될 수 있도록 소규모로 시작하며, 앞으로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견학 횟수와 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제대군인 주간... '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일자리를'

국토방위 헌신한 제대군인에 감사와 응원... 온라인으로 진행



K-TV 국민방송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된 취·창업 멘토링 토크콘서트

국가보훈처는 10월5일부터 8일까지 국토수호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응원을 전하는 '2020년 제대군인 주간'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올해로 9회째 맞이한 '제대군인 주간'은 지난 2012년부터 매년 10월 둘째 주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제대군인에게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제복을 입고 살아온 그분들의 삶에 보람과 자긍심을 갖게 한다는 의미를 담아 '브라보! 마이 라이프(Bravo! My Life)'라는 표어(슬로건)으로 개최됐다.

5일에는 대한민국 국토수호에 헌

신한 제대군인에게 웃음과 용기를 주는 응원 영상을 본인의 SNS에 게시하는 대국민 제대군인 응원 캠페인 '브라보! 00라이프' 대회(챌린지)를, 6일에는 K-TV 국민방송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취·창업 멘토링 토크콘서트와 제대군인 영상공모전 시상식 등이 열렸다.

7일에는 실시간 강연회 '뉴딜 잡담(Job담)'을 통해 제대군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소개하고 전국 제대군인지원센터 현장 상담사들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참여해 질의응답 등 쌍방향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마지막 날인 8일에는 2020년 제

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대표기업을 방문하여 회사사옥에서 인증기업 현판식을 개최, 제대군인 채용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아울러 행사기간 중 제대군인지원센터 누리집(www.vnet.go.kr)을 통해 기업과 구직을 희망하는 제대군인을 직접 연결하는 온라인 취업박람회 '굿 잡(Good Job)'을 개최하여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대군인들에게 비대면 면접 기회도 제공했다.

보훈단신

청산리대첩 전승 제100주년 기념식

청산리 독립전쟁 승리 100주년을 맞아 10월24일 독립군의 항전 의지와 민중들의 독립에 대한 열망을 기억하는 '청산리대첩 전승 제100주년 기념식'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식은 '다시, 대한민국! 끝내 이기리라'를 주제로 개최됐으며 백년 전 불굴의 정신으로 청산리대첩 승전을 이룬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재조명함으로써 국민

들에게 용기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행사는 국방부 의장대의 추모 의식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애국가 제창, 추모 묵념, 특별낭독, 기념사, 축사, 기념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KTV 국민방송 생중계는 물론 온라인 콘텐츠가 국가보훈처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게시됐다.

독립운동 자료 기증 학생에 표창 수여

국가보훈처는 12월12일 세종청사에서 독립운동 자료 기증 공로자인 조민기 학생에게 국가보훈처장 표창장을 수여했다.

조민기 학생(만 15세)은 대전 글꽃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으로, 그동안 부친이 수집해 보관 중이던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많은 자료를 가족회의를 통해 기증해 왔다.

조민기 학생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

주년을 맞은 작년 5월에 독립기념관에 안중근 의사 의거 관련 사진이 포함된 일본 역사 사진첩 1점을 기증했고 작년 8월에는 민족대표 33인 권동진·오세창 등 유목 4점을 기증했다.

특히 작년 2월에는 안중근 의사 사건공판기록 등 4점을 청와대를 통해 독립기념관에 기증했던 장본인으로 청와대 초청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환담도 가진 바 있다.

여성제대군인 취업 위한 모의면접 개최

여성제대군인 전역자들에게 취업지원을 해오고 있는 경기남부보훈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는 10월15일 여성제대군인 취업을 위한 모의면접을 별관 2층 회의실에서 실시했다.

센터는 전문상담사를 지정하여 여성제대군인들이 전역 후 경력단절 되지 않도록

록 주기적으로 채용정보 제공, 1:1상담을 통한 취업 목표수립, 교육비 지원, 전직 지원금 지원 등을 통해 성공적인 전직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 19로 취업 기회가 줄어든 여성제대군인들을 위해 관내 기업들과 일자리 창출 노력을 하고 있다.

6·25전쟁 가상현실(VR) 체험전

10월27일~연말까지 서울과 부산에서 진행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는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참전 영웅을 가상세계에서 만나볼 수 있는 '6·25전쟁 가상현실(VR) 체

험전'을 10월27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부산박물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체험전은 '영웅에게'라는 주제로, 가상현실

(VR)과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해 국민 누구나 6·25전쟁을 간접 체험함으로써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느끼고 6·25전쟁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체험을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해당 장소를 방문하면 70년 전 참전 영웅의 발자취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통일전망대 8월14일 운영 재개

강원도 고성군 대표 평화안보관광지인 통일전망대가 172일 만인 2020년 8월14일부터 다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주)통일전망대

우리나라 최북단에 위치한 통일안보 체험장!

033)682-0088

제주도 향군, 서귀포산업과학고 학생에 장학금

업무협약 체결, 군 특성화고 학생 6명 선발...지원



제주도 향군(회장 김달수)은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교장 송재우)와 함께 추진 중인 인력 맞춤형 교육협력을 위한 협약에 따라 선발된 2020년 장학생 6명에게 각 50만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는 9월22일 통신전자과

군 특성화고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했다. 제주도 향군과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는 군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호국보훈 안보활동을 위한 현장교육 활동 지원, 애국선열의 숭고한 애국정신 계승을 위한 추모사업 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계기로 양 기관은 끈끈한 유대관계 형성으로 상호 발전을 이뤄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고 국가 안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한 전문기술을 겸비한 해군 전문부사관을 양성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작은 실천으로 소아암 환자에 희망을...

향군 경영본부 함오숙 과장, 딸과 함께 머리카락 기부

소아암 환자를 위해 길러온 머리카락을 기부해 사랑을 실천한 향군 경영본부 함오숙 과장.

함 과장은 최근 소아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2년 동안 소중하게 기른 머리카락 20cm를 잘라 어린 암환자를 위한 머리카락 나눔운동을 펼치고 있는 어머니 운동본부(www.givehair.net)에 기증했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인 함 과장의 딸인 전주아 양도 여기에 동참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여군들이 머리카락을 소아암 어린이 환자에게 기증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언론 기사를 접한 함 과장은 모발 기증이 다소 생소했지만 고통 받고 있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기증을 결심했다. 아울러 향군 및 여성회 회원들도 많이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같은 선행을 알려왔다.



함오숙 과장과 딸 전주아 양

함오숙 과장은 “작은 실천이지만 소아암 환자들의 쾌유를 기원하며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모발 기증을 딸과 함께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뿐만 아니라 함오숙 과장은 평소에도 복지관 봉사활동과 헌혈증서 기증, 기부금 나눔 등 다양한 선행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우수회 탐방 / 전북 남원시 향군

‘화려하지 않지만 실속 있고, 작지만 강한 조직’

변화 혁신으로 조직 강화, 지역 최고 단체로 자리매김

충의와 절개의 고장 전북 남원시 향군(회장 하정두)은 내실있고 실속있는 활동으로 주민들에서 칭송받고 변화와 혁신을 통한 조직 강화를 통해 지역 내 최고 안보 보훈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2018년 취임한 이래 투철한 사명감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지역 내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사회단체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는 하정두 회장의 지도력이 더해져 남원시 향군은 봉착한 당면과제인 재정위기 극복과 자립은 물론 봉사활동 극대화를 통한 조직 위상 강화를 위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지자체와 유대강화, 운영비 늘어 회관 리모델링 임대수익 2배로

여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지방에서 원활한 향군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 및 유대강화가 필수적이다. 남원시 향군도 남원시 및 시·도의회와 주기적인 유대강화 활동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회 위상을 강

화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운영비 증액의 당위성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꾸준히 운영비 지원을 늘여가고 있다. 또 향군회관 2층을 리모델링하여 임대수익을 늘일 수 있었던 것도 지자체와 협조에서 비롯됐다. 남원시 향군은 1천200만원을 지원받아 40평 규모의 2층 유휴공간을 분할하여 임대함으로써 2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됐다. 지자체와 긴밀한 유대강화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평가 받을 만하다.

남원시 향군은 안보단체 본연의 임무도 소홀이 하지 않는다. 관내 14개 안보단체 협의회 회장으로 안보활동을 주도함은 물론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선도하고 있다.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호국안보의식 고양을 위해 정기적인 안보강연회를 개최하는 한편 지라나는 후계세대들의 안보의식 함양을 위해 안보현장 견학 등 계도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중남 칠백의총과 논산 계백 군사박물관 등 역사안보 현장 견학행사도 가졌다.

여성회, 보리쌀 판매 재원 마련 봉사활동 운영비, 회원자녀 장학금

봉사활동 재원 마련을 위한 여성회 노력도 눈여겨 볼만하다. 여성회는 매년 6월 보리쌀 판매로 100만원 이상의 소소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향군가맹점을 비롯한 시중 식당, 회원 및 안보단체들에 매년 450여포 이상의 보리쌀 판매하여 자체 운영비 및 우수회원 학자금 지원 등에 사용하고 있다.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과 시행, 그리고 영입까지 전 회원이 적극 동참함으로써 수익확보에 더해 회원 간 결속을 다지는 효자사업으로 자리 잡은 이 사업은 실속 있는 여성회 운영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남원시 향군의 활동은 화려하지는 않다. 다른 각급회에서 해 오는 활동들이다.

하지만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 이를 실천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힘은 다름이 느껴진다. 낮은 자세로 회원들을 이끌며 숭선수범 실천이 몸에 밴 하정두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 이웃을 섬기고 지역을 돌보는 일이 천직인 양 책임감을 갖고 실천하는 여성회원들.... ‘화려하지 않지만

내실있고 작지만 강한 조직’이란 슬로건이 딱 들어맞는 남원시 향군이 아닌가 싶다. 남원시향군의 활기찬 미래를 기대해 본다.

◇회원의 목소리

재향군인, 국가안보 최후의 역군으로 거듭나자!

10월8일은 재향군인의 날이다. 재향군인회는 1952년 2월1일 창설식을 가진 이후 올해로 창설 제68주년을 맞는다.

1951년 7월,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회담이 시작되자 외신기자 회견을 통해 휴전회담을 반대하는 소신을 밝히면서 “시설과 장비만 허용된다면 25만명의 병력을 더 창설할 수 있다”며 병력 증원을 위한 수단으로 향군창설을 언급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향군은 병역법에 의거, 전역을 한 육군예비역 2,000여명을 모체로 해 1952년 2월1일 전시 임시수도였던 부산의 동아극장에서 허정 당시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적인 창설식을 거행했다.

이승만 대통령, 병역증원 방안으로 향군 창설 언급

향군의 설립 목적은 국방부 병무행정의 집행을 보조하는 예

하 단체로 지역 내 징병 대상자와 기타 예비역 해당자를 관리해 동원체제에 만전을 기하는데 있었다. 2,000여명으로 출발한 향군은 초기의 국방부 보조 역할에서 벗어나 제2의 국가안보 최후의 보루라는 자부심으로 국방력 강화를 위해 영역을 확대해 국민안보의 길잡이 역할을 해 오고 있다. 지금은 130만명의 회원으로 13개 시·도회 및 221개 시·군회를 갖춘 국내 최고·최대의 안보단체로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우리 향군은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국가 운명이 ‘백적간두’ 위기에 처했을 때 구국·호국의 깃발 아래 분연히 뭉쳐 일어섰다. 그리하여 전쟁 중에는 목숨 바쳐 공산주의자들의 적화야욕을 막아 냈고, 전쟁 후에는 싸우면서 건설하는 재건의 역군으로서 오늘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앞장섰으며, 국가안보 임무를 완수하

기 위해 헌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향군이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역사와 전통에 어울리는 명실상부한 ‘국가안보의 최후의 역군’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전쟁 중엔 공산주의 막고 전쟁 후엔 재건의 역군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기꺼이 목숨을 바친다’는 건위수명의 정신자세로 조국수호에 헌신하셨던 선배님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지난날 죽음을 무릅쓰고 나라를 지켜낸 그 충정으로 튼튼한 안보에 믿음직한 울타리가 돼 줘야 한다.



김영호 강원도 향군 향군회장

강원 양구 향군, LED전등 교체 봉사

저소득 6·25 참전용사 여섯 가정에 무료지원



강원 양구군 향군(회장 허남흥)은 10월20일부터 이틀간 관내 저소득 6·25 참전유공자 여섯 가정의 노후 된 형광등을 LED 전등으로 무료교체 해 줬다. LED 전등은 기존 형광등에 비해 매우 밝고 전력량 절감효과도 높아 연료한 참전용사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등을 교체한 참전용사 어르신

들은 “방이 늘 어두워 답답했는데 전등을 바꾸고 나니 너무 환해서 마음까지도 밝아지는 것 같다”고 양구군 향군에 고마움을 전했다.

허남흥 회장은 “LED 전등 교체 사업으로 어르신들이 보다 밝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관내 어려운 환경의 참전용사들을 찾아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어르신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원 인제 향군, 태극기 달기 운동...나라사랑 정신 함양



강원도 인제군 향군(회장 정주학)은 10월9일 한글날을 맞이하여 김용자 인제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 상남면 향군 임직원들과 함께 군민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이를 통해 한글의 소중함을 깨우치기 위한 ‘태극기 달아주기 운동’을 전개했다. 이날 인제군 향군은 국가 경축일 및 기념일 등에 지속적인 태극기 게양을 독려하기 위해 태극기 게양의 방법과 게양일이 게재된 계도 전단지도 함께 배포하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했다.

채창수 전주시 향군회장, 본부에 마스크 4,000장 기증



전북 전주시 채창수 회장이 10월27일 김진호 회장에게 마스크 4,000장을 전달하고 코로나 19를 극복하고 안보 제2보루 소임을 완수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군번만 있으면 누구나 향군 정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향군정회원 간편하게 가입하세요!

온라인가입 바로가기

- 향군 회원가입
- 향군 가맹점
- 각급회 소식
- 향군 연락처

간편한 정회원가입

향군 가맹점 보기

본부 및 각급회 소식

본부 및 각급회 연락처

정회원 자격 : 군번소지자 누구나

- 육해공군, 해병대에서 군복무를 마친 예비역
-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소집되어 군복무를 마친자
- 퇴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

정회원 특전

- 향군 편의시설 할인혜택
 - 중앙고속관광, 고성 통일전망대, 충주호관광선 등
- 전국 향군 우대가맹점 할인
 - 전국 가맹점별 할인(10~30%)
 - 군인공제회관 '엠플러스 웨딩' 할인 (웨딩, 뷔페 등 전품목 15%)
- 자녀 장학금/생계보조금 지급
- 국립 현충원/호국원 안장 대상자 안내
- 각종 향군행사 초청 및 참가
- 기타혜택 (복지물 등)

평생회비 (단 1회만 납부)

병	부사관·위관	영관
1만원	2만원	5만원

QR코드 스캔하기

← 모바일 바로보기

APP 다운로드 방법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폰)와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검색
상단에 나오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 APP를 클릭하여 설치 후 실행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원 가입문의 : 02)417-5412

홈페이지 : http://www.korva.or.kr

각급회 소식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서고 안보 계도에 팔 걷어... 향군 각급회 활동

(9월21일 ~ 10월20일)

부산시 향군



부산진구회 : 9월28일 추석을 맞이하여 관내 보훈시설 참배와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6·25참전용사와 무공수훈자 30분을 대상으로 위문활동 펼쳐.



기장군회 : 여성회는 10월20일 무공수훈 전공비, 6·25참전유공자 명비 등 장안 기룡리 현충시설에 대한 정화활동 실시.

대구시 향군



대구시회 : 10월8일 호텔 인터불고에서 향군인직원과 호국단체연합회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호국단체 한마음대회 개최.

동구회 : 10월16일 지묘동 동화천 일대에서 산불예방 현수막 설치 및 쓰레기 줍기 등 환경 정화활동 전개.



수성구회 : 9월22일, 23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불우회원 및 탈북 새터민들에게 쌀과 라면을 전달하며 위로.

인천시 향군

남동구회 : 구월4동회는 9월28일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취약계층인 한부모 가정 11가구에 선물 전달.간석1동회는 10월10일 코



로나19로 인해 어렵게 생활하는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에게 생활필수품 선물세트 전달.

경기도 향군



안양시회 : 9월28일 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지침 준수 캠페인 전개.

수원시회 : 9월28일 수원역 일원에서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의무화 캠페인'을 전개하고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민들에게 철저한 위생관리 당부. 같은 날 추석을 앞두고 화성시 비봉면 군부대를 방문,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품 전달.

의왕시회 : 9월29일 의왕역과 고천동·청계동 일대에서 코로나 19 극복 위한 마스크 착용 캠페인 실시.

양평군회 : 9월29일 양평 5일장, 양평역 일대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연휴 보내기 캠페인' 실시.

이천시회 : 9월25일 이천 중앙동 일대에서 코로나 19 극복 위한 마스크 착용 캠페인 전개.



포천시회 : 9월29일 시외버스터미널과 소흘읍 송우 사거리에서 마스크 착용 캠페인 전개.

양주시회 : 9월29일 덕정역 앞에서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캠페인 전개.

군포시회 : 9월28일 산본역 앞에서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캠페인 전개.

과천시회 : 9월28일 과천청사 역 앞에서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캠페인 전개.

여주시회 : 9월28일 시외버스터미널, 중

양동 입구에서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캠페인 전개. 9월24일 추석을 맞이하여 머리핀 350개를 여주시장애인복지관과 오순절평화마을에 전달.

용인시회 : 9월28일 용인터미널, 용인사거리, 용인재래시장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캠페인 전개.

남양주시회 : 10월6일 도농역에서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캠페인 전개.

시흥시회 : 10월6일, 7일 정왕역, 삼미시장 등에서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캠페인 전개.

고양시회 : 10월8일 경의선 탄현역에서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 두기 준수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캠페인.

강원도 향군



홍천군회 : 10월3일 홍천군청을 방문하여 허필홍 군수에게 불우이웃돕기 성금 200만원 기탁.



양구군회 : 9월25일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현장인 백석산 일원 부대를 방문,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품 전달.

태백시회 : 9월23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낙동강 발원지인 황지연못에서 수증 정화활동 실시.

충청북도 향군

충북도회 : 코로나19로 국가유공자 위로연을 실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가유공자들에게 지역 농산물인 햅쌀을 위로품으로 전달하며 위로.



청주시회 : 9월24일 효성병원과 대전보

훈병원을 방문하여 국가유공자들에게 영양제, 마스크, 물티슈 증 건강 위문품 전달. 여성회는 10월14일, 20일 소외된 이웃들을 대상으로 미용봉사활동 실시.

충주시회 : 9월28일 추석을 앞두고 3105부대를 방문, 국가방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15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하고 위로.



영동군회 : 10월15일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세계로 전달하고자 시작된스테이 스트롱 챌린지 캠페인 동참.

대전 충남 향군

대전 서구회 : 여성회는 추석을 앞두고 '한가위 나눔의 날' 행사 가져.

대전 동구회 : 10월14일 향군의 날 행사를 앞두고 지역환경 정비를 위한 대전천 하상도로 정화활동 실시.



공주시회 : 9월24일 추석을 앞두고 공주대대를 방문, 위문품을 전달하고 지역 안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온 장병 노고 격려.



아산시회 : 9월26일 참전유공자 가구를 방문, 연탄창고를 만들어 1000장의 연탄과 함께 위로와 감사의 마음 전달.



부여군회 : 9월27일 제백 장군 이하 오천 결사대의 충절을 기리고 무명 장졸들의 원혼을 위로하는 오천결사대 충혼제 거행.

예산군회 : 9월24일 추석을 앞두고 기차역과 터미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에서 코로나19 방역활동.

서천군회 : 9월21일 추석을 맞아 서천읍 둔덕리 인근 무연고 분묘 별초 봉사활동 전개.

전라북도 향군

전주시회 : 9월23일 추석을 앞두고 지역 안보를 위해 힘쓰고 있는 육군 35사단 전주 대대를 방문, 위문품 전달. 10월8일 가련산 공원 내 '순국학도현충비'를 참배하고, 환경정화활동 전개. 청년단은 10월19일 코로나19 위기 사태를 슬기롭게 이겨내며 전주시 지역방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전주시청과 전주시 보건소를 방문, 100여만 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



군산시회 : 9월25일 추석을 맞아 재래시장 상권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극동사거리와 나운주공시장 일대에서 지역경제살리기 캠페인 전개.



정읍시회 : 9월24일 추석을 앞두고 지역 군부대 105연대 4대대를 방문, 탁구대 2세트를 증정하고 장병 격려.

부안군회 : 9월22일 추석을 맞이하여 원로향군 회원 가정을 방문, 선물 전달. 여성회는 9월24일 관내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등 소외계층 이웃 20세대를 방문, 추석명절 선물을 전달하고 위로. 10월7일 부안군청 앞 소녀상 잔디광장 주변정화활동 실시.

익산시회 : 9월25일 추석을 앞두고 향군회관 환경개선작업 중인 장애인복지관 일자리 참여자에게 생필품 전달. 10월8일 향군회관에서 김복현 안보강사를 초청, 백선엽 장군을 주제로 안보교육 실시.



김제시회 : 10월12일 금산사 입구에 위치한 안영권 하사 전공 기념비에서 제68주기 추모제 거행.

남원시회 : 10월15일 충남 칠백의총과 논산 계백 군사박물관 등 역사안보 현장을 견

학하고 호국의지 다져.

장수군회 : 10월8일 탈북 강사를 초청, 회원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안보교육 실시. 여성회는 10월17일 독거노인, 참전용사들을 위한 이동식 빨래 봉사활동 실시.

고창군회 : 여성회는 10월15일 자연보호를 위한 친환경 샴푸 만들기 체험행사 실시.



완주군회 : 여성회는 9월22일 추석맞이 이웃사랑 나눔 실천 행사에 동참, 새우장 350통과 굴청을 만들어 지역 이웃에게 나누며 사랑 실천.

광주 전남 향군



광주 전남도회 : 9월24일 안보회관 소회의실에서 순천, 완도, 목포, 보성 사무국장에 대한 자각심사 위원회 개최. 여성회는 10월15일 광주광역시청 대회의실에서 '행복한 광주! 바로 지금! 여성이 만든다.'라는 주제로 열린 제28회 광주여성 대회 참석.



광주 광산구회 : 9월28일 추석을 앞두고 회관인근 소외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송편나눔 행사 실시.

나주시회 : 10월12일 영산포 미가식당에서 예비군 중대장 간담회를 갖고 정회원 확보 방안 논의.



함평군회 : 여성회는 10월17일 함평군 노인복지회관에서 관내 노인들에게 전달할 200인분 도시락 봉사 실시.

영암군회 : 서호지회는 9월23일 추석을 맞아 소산리 이북도민 통일동산에서 별초 봉사활동 실시.

광양시회 : 9월25일 코로나 19 감염예방을 위해 광양읍 5일 시장 방역 봉사활동 실시.

보성군회 : 9월23일 추석을 앞두고 문덕면, 검백면 소재 참전용사 선양비 2곳에서

풀베기 정화활동을 실시한 후 참배.

무안군회 : 10월9일 무안전통시장에서 마스크를 나눠주며 코로나 19 감염예방 캠페인 전개.

영광군회 : 9월24일 추석을 앞두고 관내 주요도로, 백수 해안도로, 태청산 일대에서 자연정화활동 실시.

강진군회 : 9월24일 추석을 맞이하여 관내 현충시설 정화활동 실시.

완도군회 : 10월15일 장보고대대를 방문, 국토방위와 코로나19 예방 및·재난 복구에 힘을 쓰고 있는 병사들을 위로.

경상북도 향군

영주시회 : 여성회는 10월8일 제326부대 3대대 장병들의 유격훈련 종료일에 위문품을 전달하고 장병들의 노고 격려.



영천시회 : 10월8일 전북 남원시 향군을 방문, 수해피해를 입은 남원시를 돕기 위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영·호남 화합과 우의를 다져.

경남 울산 향군



창원 마산 합포구회 : 9월24일 복지시설인 합포구 애리원을 방문, 생필품 전달을 하고 방역 및 청소 봉사 실시.

창원 의창 성산구회 : 10월19일 창원시의회 의장을 예방하고 향군의 날 행사 등 현안 업무 논의.

함안군회 : 9월25일 가야전통시장 일대에서 젠더폭력 추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 전개.

거제시회 : 연초면회는 9월27일 관내 6·25 참전유공자 묘지 별초작업 및 묘비 닦기 등 정화활동 전개. 하청면회는 9월21일 추석을 맞이하여 국군묘지 별초 및 환경정화활동 실시.

거창군회 : 9월23일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8%2부대 6대대를 방문, 위문품을 전달하고 위로. 10월20일 향군회관에서 탈북강사 방소연씨를 초청, 안보강연회를 가져.



양산시회 : 여성회는 9월22일 향군회관에서 간단한 다과회를 겸한 알뜰 장터를 열

어. 9월24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생계보조비 수령 대상자 자택을 방문, 위문품 전달.



통영시회 : 10월12일 남양산 공원에서 남양산 디지털 파크 사업 설명회 참석 및 공원 주변 산책로 환경정비 활동 실시.

함천군회 : 9월21일부터 25일까지 6·25 참전유공자 및 불우회원 50가구에 위문품 전달하고 봉사활동 실시. 10월20일 보훈회관에서 호국보훈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현안 논의.



하동군회 : 9월25일 추석을 앞두고 참전용사 및 독거노인 가정에 반찬나눔 봉사활동 실시. 10월19일부터 3일간 부산 UN공원, 포항 해병대 충혼탑, 독도일대 안보현장 견학행사를 갖고 안보의식 고취.

제주도 향군



제주도회 : 9월22일 제379군사안보지원부대를 방문, 부대현황 청취와 간담회를 갖고 100만원 상당의 위문품 전달. 여성회는 9월28일 탐라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혈압체크기, 지압기 등 의료기구를 위문품으로 전달.



제주시회 : 10월4일 일요일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제주장애인요양원, 제주케어하우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행복한 쉼터 등 4곳에서 예초 봉사 실시. 10월7일 제주시청을 방문, 안동우 제주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향군업무 협조 요청.

서귀포시회 : 예래동회는 9월27일 추석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충혼비와 주요 도로변 환경정비.

친목단체 활동

백마고지 3군신 추모제



백마고지참전전우회(회장 박명호)는 10월12일 어린이대공원 3군신 동상 앞에서 백마고지 3군신 추모제를 거행했다.

총재단 회의



해병대전우회(총재 이흥희)는 10월13일 향군 회의실에서 총재단 회의를 거행했다.

금화지구 희생 헌우 추모식



헌병전우회(회장 홍종설)는 10월21일 3사단 헌병대 위령비에서 6.25참전 금화지구 희생 헌우 추모식을 거행했다.

한국독립군 3대첩 100주년 기념식



광복군동지회(회장 김영관)는 10월21일 전쟁기념관 뮤지엄 홀에서 한국독립군 3대첩 100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다.

친목단체 소식 (날짜 순)

- ▲포병전우회 : 11월3일 전우회 사무실에서 임원회의.
- ▲해병대전우회 : 11월5일 파주 임진각 광장에서 장단 사천지구전투 전승행사.
- ▲6.25참전유공자회 : 11월5일 철원 월정역에서 철의삼각지대 전투 전물장병 추모제.
- ▲갑종장교전우회 : 11월11일 전우회 사무실에서 상임운영위원회의.
- ▲단기부사관총동문회 : 11월12일 국방컨벤션에서 창립 21주년 행사.
- ▲정보동우회 : 11월18일 향군본부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의.
- ▲성우회 : 11월26일 코리아나 호텔에서 고문회의.
- ▲의정총동우회 : 11월27일 육군회관에서 정기총회.

※ 행사일정은 단체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성우회, “한미동맹 강화 측면에서 전작권 전환 추진돼야”

최인수 합참 전작권전환추진단장 초청 간담회 개최

성우회(회장 이종옥)는 10월15일 최인수 합참 전작권전환추진단장을 초청한 자리에서 “한미 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측면에서 전작권 전환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인수 단장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업무추진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한 후 성우회는 이같이 밝히고 “최초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의 충족여부를 객관적으로 꼼꼼히 따져야 하고 조급함에 시키나, 정치적 요소가 고려되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덧붙였다.



성우회는 최인수 합참 전작권전환추진단장을 초청,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어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함으로써 확고한 한·미 동맹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옥 성우회 회장은 최상위 국가안보전략은 부전승(不戰勝)의 전략이며 이를 위해

더욱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여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형유람선”으로 안.전.하.게 운항

고객센터

주간 : 043)422-1188

야간 : 043)422-1189

충주호 관광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충주호의 유일한 대형선 보유업체!!!

(충주호유람선과 저희 충주호관광선은 다른 회사이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충주호관광선 운항코스 중 **장희나루 ~ 청풍나루 코스**의 경우

- 대형선으로 운항합니다.

- 경쟁사에 비해 운항거리와 이동거리가 길어서 볼거리가 더 많습니다.

- 단양팔경인 옥순봉과 구담봉을 조망하는 코스이며 옥순대교, 청풍대교, 청풍문화재단지, 청풍수경분수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선박입니다.

저희는 충주호에서 운항하는 선사 중 가장 많은 선박과 대형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항상 고객님들을 위해 안전한 운항을 책임지겠습니다.

6·25전쟁 70주년 특별기획 6·25전쟁 전승기념관을 찾아 ⑩

'6.25 전쟁판도 바꾼 5일간의 기적' ...화령장 전투 대구 진출하려는 북한군 계획 좌절시켜...낙동강방어선 구축시간 벌어



※화령장 전투

화령장은 경상북도 상주군 화서면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보은과 괴산에서 상주로 연결되는 교통의 중심지이다.

북한군 제15사단이 화령장~상주 축선으로 공격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육군은 급히 국군 제 17독립연대에게 방어 임무를 부여했다. 이에 제17연대는 화령장 일대에서 매복하며 기다리고 있다가 계곡으로 남하 중인 북한군 제 15사단을 기습 공격하여 적 주력 2개 연대를 격멸했다.

화령장 전투에서 북한군 제15사단은 2개 연대가 괴멸되는 참패를 당했으며 병력과 장비의 대부분을 상실했다.

화령장 전투는 북한군의 기습공격으로 아군이 후퇴하는 암울한 시기에 국군17연대가 화령지역의 주민, 청년단원들과 함께

북한군을 섬멸해 대승을 거둔 전투이다.

한국 전쟁 초기인 1950년 7월17일부터 7월21일까지 국군이 소백산맥 일대에서 지연전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이 전투에서 국군17연대가 승리함으로써 낙동강 방어선 구축에 시간을 벌어준 의미 있는 전투이기도 하다.

또 이 전투는 소백산맥의 험준한 지형을 뚫고 상주를 점령한 후 일거에 대구로 진출하려는 북한군 전선사령부의 계획을 좌절시킨 전투로 기억되고 있다.

화령전승기념관

2018년 10월에 개관한 화령전승기념관은 낙동강 호국벨트사업과 연계하여 2017년 12월에 건립됐다. 6·25전쟁 당시 국군 단일 최초의 승전인 상주 화령전투를 기념하기 위해 상곡리 전투가 있었던 화

령초등학교 송계분교에 자리잡았다.

기념관에는 화령장 전투 참전용사들의 위훈을 기리고 전쟁의 참혹함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조형물 등을 전시해 전쟁의 아픔을 더욱 실감나게 전달해 주고 있다. 이 밖에도 군장체험, 군복체험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고 손바닥을 맞닿으면 전투에 참여하였던 분의 생생한 증언이 영상으로 나오기도 한다.

기념관 외부에는 전투에 사용되었던 장갑차와 전차, 헬기 등이 전시되어 있고 야외전시장에는 기억정원, 참호정원, 상징 조형물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되어 있다.

최근에 건립되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아 흥미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 화령전승기념관은 호국충절의 고장 상주를 알리고 호국안보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우여! 어디에 ...

• 김중서씨가 1966년도~1967년 육군통신학교 소통8기 2차 동기생들을 찾고 있습니다. <김중서 010-6293-2731>

• 이강수씨가 1978년도 2723부대 803중대에 기술병으로 입대한 양준석씨를 찾습니다. 양준석씨는 논산 훈련소, 김해 공병학교를 거쳐 저와 같이 정비중대에서 3년간의 복무를 마쳤습니다. <이강수 010-5335-8337>

• 한양전씨가 1970년 수도기계화보병사단 101기보대대 수송관으로 근무했던 김현모씨를 찾습니다. <한양전 010-6686-4776>

• 진재평씨가 1984년, 85년 경 28사단 포병연대 273대대에서 근무했던 고경택, 장현남, 김지훈씨를 찾습니다. <진재평 010-5680-5605>

• 김학경씨가 1975년~78년 경 30사단 90연대 수송부에서 함께 근무한 전우들을 찾습니다. 근무당시 수송관 박주백 준위님, 하사 김영만, 양광희, 양태호, 김동규, 김주식, 김대곤, 김성민, 김병술 등 내무반 전우들은 연락바랍니다. <김학경 010-2554-2776>

향군장학기금

※ 기간 : (20년 9월 21일 ~ 10월 21일)
※ 단위 : 기부구좌(기부누계)

▶ 정기기부

- 前 홍보실장 이정호 2(273)
- 권율부대 김홍수 2(2)
- 권율부대 백승민 1(1)

♣ 따뜻한 정성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학재단 : ☎ 02-417-5887)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홈페이지에도 기부현황을 게시하였습니다.

향군장학기금 기부 계좌 안내

계좌번호 : 국민은행 801701-04-194529
예금주 : 재단법인 향군장학재단

정상 전립선은 호두 한 알 정도 크기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전립선의 크기가 점점 커져 40대 이후부터 전립선비대증이 발병하기 시작한다. 전립선비대증에 대해 알아보자.



건강정보

중·장년 남성을 괴롭히는 전립선비대증

전립선비대증을 방지하면 전립선암?

전립선비대증과 전립선암은 완전히 다른 질병이다. 다만 두 질병을 증상만으로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전립선비대증 증상을 호소하는 분 중 전립선암이 발병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전립선비대증 약을 복용해 증상이 개선되면 전립선암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전립선암 검사도 주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전립선이 크면 무조건 전립선비대증?

검사해보면 전립선이 크지 않아도 심한 이상증상을 호소하기도 한다. 또 반대의 경우도 많기 때문에 조기에 전립선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다. 전립선비대증의 대표적

증상으로 소변의 세기가 약해지는 세뇨, 낮에 2시간 이내에 소변을 보는 빈뇨, 밤에 2회 이상 소변 때문에 일어나는 야간뇨, 소변을 참지 못하는 절박뇨, 배뇨가 지연되는 지연뇨, 소변이 여러 차례 끊기는 단속뇨, 배뇨 후 잔뇨감 등이 있다.

전립선 마사지를 하면 증상 완화에 도움?

전립선 마사지는 전립선염이나 전립선종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증상을 완화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주기적인 전립선액 배출이나 사정이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전립선비대증 증상을 완화하는 방법은 아니다. 자가 전립선 마사지는 안 하는 것이 좋다.

전립선 질환을 치료하면 성 기능이 약화?

전립선비대증이나 전립선염 치료 중 알파 차단제 또는 안드로겐 억제제 투여 후 일정한 사정 장애(역행성 사정)나 발기력 저하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알파 차단제는 전립선을 관통하는 사정관 내 압력을 떨어뜨려 선행성 사정을 방해하고, 안드로겐 억제제는 활성화된 남성호르몬을 억제해 전립선 크기를 줄이기 때문에 발기력이나 성욕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가역적 변화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약물 치료에 실패할 경우 선택하는 수술적 방법은 발기나 성욕에는 영향이 없으나 사정에는 불가역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전립선비대증 오해와 편견

◆전립선비대증 환자는 감기약을 먹을 때 조심해야 한다?

-YES 콧물, 기침약 등 항히스타민제 복용을 피하거나 조절해야 한다

◆20, 30대 남성은 전립선비대증에 절대로 걸리지 않는다?

-NO 전립선비대증은 말 그대로 증후군이기에 때문에 환자가 증상을 호소하면 진단할 수 있다

◆자전거를 많이 타면 전립선비대증을 유발한다?

-NO 전립선비대증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증상이 악화될 수는 있다

◆소변을 자주 보면 전립선 건강에 좋다?

-NO 소변을 오래 참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미리 배뇨를 하는 습관도 빈뇨나 야간뇨를 악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규칙적인 배뇨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보정세분석/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행사

우리의 안보전략, 노동당 창건 75주년 행사 이전과 이후로 구분돼야

북한은 노동당 창건 기념일인 지난 10일 0시를 기해 대규모 열병식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북한 주민들의 결속과 대외적인 무력시위를 겸한 선전선동의 진면모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례적인 심야 열병식이다. 김정은의 주민들을 향한 “면목없다”는 자세낮춤 모습과 연설 도중 인민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을 전하며 울먹이는 모습, 그리고 북한군의 현대화된 개인전투장비가 드러났다.

김정은의 연설에 나타난 것처럼 “불과 5년전 바로 이 장소에서 진행된 당 창건 70돌 경축 열병식과 대비해 보면 우리 군사력의 현대성은 많이도 변했으며 그 발전의 속도를 누구나 쉽게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표현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는 북한이 그동안 여러 차례 남북, 미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비핵화 가능성을 내비치던 외양과 상관없이 핵개발을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충분히 위협적인 모습을 갖추어 온 것이 분명해졌다. 따라서 이번 행사를 살펴보고 냉철하게 대응해야 할 우리의 강력한 안보대비태세에 대한 마음자세를 가다듬고자 한다.

북한의 전략전술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이번 열병식에서 무엇보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북한이 지난 해 연말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과 ‘충격적 실제행동’을 공언한 이후 새로운 전략무기로 평가되는 신형 ICBM 및 SLBM을 비롯한 초대형 방사포, 잠잠차 등 신형 전술무기들을 공개했다는 것이다.

북한이 첫 공개한 신형 ICBM과 SLBM은 모두 탄두부에 핵탄두 2~3개가 들어가는 다탄두 미사일 형태로 진화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북한 전문매체인 38노스는 이번에 공개된 ICBM을 화성-15형과 비교해 “길이는 4~4.5m, 직경은 0.5m가량 더 큰 화성-16형으로 추정된다”며 “이동식 ICBM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이즈”라고 분석했다. 신형 ICBM이 사거리를 확장했다면 뉴욕과 워싱턴 동시 공격이 가능한 수준일 수 있다는 것이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북극성-4스형도 3000톤급 잠수함(로미오급 개량형)이나 4000~5000톤급 잠수함 탑재용이라고 군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북한이 초대형 ICBM과 SLBM을 공개한 것은 언제나 ICBM 도발국면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대미 압박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신형 ICBM과 SLBM은 아직



시험발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만큼 완성도와 실전배치 가능성 등은 미지수라고는 해도 충분히 미국을 겨냥해 핵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정치적 과시행’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초대형 방사포, 북한관 이스칸데르 및 에이태킴스 미사일, 대구경 조종방사포 등 이른바 ‘신무기 4종 세트’의 다양한 변형과 개량형이 등장해 이들 무기가 실전배치 단계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초대형 방사포는 최대 사거리 약 400km로 우리 남해안까지 사정권에 두고 있는데 이번에 4.5, 6연장형 등 3종의 초대형 방사포가 등장했다. 북한관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미사일도 차륜형과 무한궤도형 이동식 발사대에 각각 탑재돼 등장했다.

북한은 이들 4종 세트로 주한미군의 심장부인 평택·오산 기지는 물론 경북 성주 사드 기지,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F-35 스텔스가 배치된 청주기지 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했다.

게다가 이들 미사일과 방사포 수습발을 ‘섞어쓰기’하면 현실적으로 기존 한미 미사일 방어체계로는 요격이 불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신형 전차는 날아오는 대전차미사일을 탐지·요격하는 능동방어체계, 기동 간 사격을 가능케 하는 포구안정화장치를 갖춘 것으로 분석했으며, 미군 스트라이커 장갑차와 외형이 유사한 북한관 스트라이커 장갑차, 스파이크 미사일과 유사한 장비를 탑재한 경장갑차도 공개됐다.

열병식에 참가한 북한 군인들의 복장과 장비들도 과거에 비해 현저히 향상된 변화를 보여주며 전력을 과시했다. 한국군의 디지털 무늬 전투복과 유사한 복장, 신형 방독면을 착용한 생화학 부대, 조준경과 소음기가 장착된 개량형 AK-47소총, 신형 불뿔(Bullpup) 소총, 방탄 헬멧 등 현대화된 개인전투장비도 선보였다.

북한군 장성에 ‘장군’ 호칭…김정은엔 ‘무력총사령관’

이번 열병식에서 이색적인 부분으로 변화된 ‘호칭’도 있었다.

먼저 김정은에 대해 ‘무력 총사령관’이라 했는데 통일부는 이에 대해 “핵심은 기존 ‘최고’ (사령관)에서 ‘총’ (사령관)으로 바뀐 것으로, 그 의미가 단순 용어정리인지 지위 변화가 포함되는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해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 매체에서 김 위원장에 대한 공식 호칭으로 ‘무력 총사령관’을 사용한 것은 처음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고사령관’이라는 명칭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며 “호칭변화가 갖는 세세한 의미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고사령관’이 전시 호칭이어서 평소 호칭인 ‘총사령관’을 사용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붙였다.

또 북한에서 최고지도자에게만 붙였던 ‘장군’ 호칭을 군대 내 장성급 인사들에게 적용해 이 날 행사에서 군 장성을 과격적으로 ‘장군’이라고 호칭했다.

북한에서 군 장성은 ‘장군’이 아니라 통상 ‘장령’이라고 불렀다. 이런 변화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지난 5월 노동당 중앙군사위 회의에서 결정된 군사칭호 격상 관련 명령서에 근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컷뉴스는 이에 대해 “당시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결정된 군사대책, 중요군 사교육기관 기구개편, 군사지휘체계 개편과 지휘 성원의 군사칭호 격상 등 7건의 명령서에 친필 서명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며, “이 조치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의 군 지위를 ‘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에서 ‘우리 무력의 총사령관’으로 격상시키면서 군 장성에게도 장군 호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관측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호칭 변화는 신 전략무기개발 등 자위적 국방력 강화는 물론 수해 복구 사업 등 각종 경제 건설 사업을 주도하는 인민군의 사기를 높이고 충성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당 창건 75주년 행사 기준, 대비전략 달라져야

북한 김정은은 이번 열병식 연설을 통해 “사랑하는 남북 동포” 운운하며 대남 유화메시지를 전했지만 동시에 신형 무기와 현대화된 전력을 선보임으로써 무력증강을 과시하며 미국과 한국을 압박했다.

그 어떤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대륙간탄도미사일 탄두에 장착된 핵을 머리에 이고 남한 전역을 타격하고도 남을 수많은 방사포의 포구가 우리를 향해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대남적화전략 의도를 명확히 식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에 대한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 우리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 온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핵심축으로 이를 바탕으로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국방태세를 갖춰야 한다. 대한민국의 방어체계는 ‘당 창건 75주년 행사 이전과 이후로 구분’되어야 한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북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위력 확대가 최선이며, 북한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서도 강한 군사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의 대북 전략은 북한이 이번에 선보인 새로운 무기체계를 갖추기 이전에 계획된 것으로 사실상 새로운 대응 전략이 요구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냉철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한 새로운 국가안보전략 구상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평화도 대화도 가능하다.

(호국안보국)